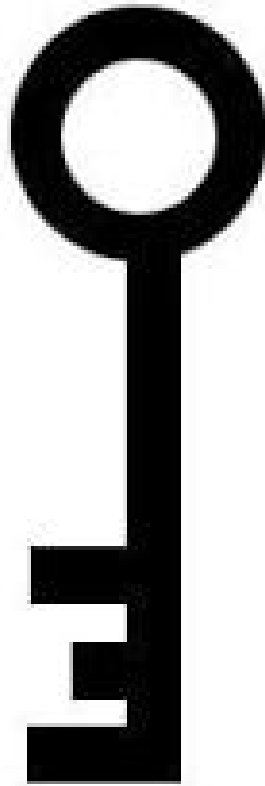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 정호승, '산산조각'



박광일의 [SECRET KEY]

고민하는
Point

[6월 평가원 대비 한수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3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42%	15번	(문법) - 지문의 정보 + 개념의 활용 :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오답률 4위	47%	13번	(문법) - 형태소 분류
오답률 3위	57%	19번	(문학-고전시가) - 고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
오답률 2위	68%	34번	(독서-경제) -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오답률 1위	73%	37번	(독서-경제) - 지문과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

[문학] 현대소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현대시 : 천양희, ‘새가 있던 자리’

[문법] 11번, 12번, 15번

[독서] 경제 지문 : 통화 정책(해설 + 분석 자료) / 과학 지문 : 척추동물의 학습과 기억 과정(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45%) 예측] : 문법 12번 문항

[적절한 선지 판단(정답 선지)][Killer Point]	
④	사슴이 등과 [㉠]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흰菩薩(보살)이 瞿曇(구담)을 만나샤 [㉡]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한 보살이 구담을 만나셔서 당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Killer-Point]	조건에 맞춰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난이도가 낮았음에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이유는 학생들이 (나)를 판단할 때, 현대어 해석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도적'의 둘째 음절의 모음이 음성모음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음조화를 판단할 때는 현대어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예문의 '당신'이 재귀칭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당신'은 재귀칭이고 따라서 앞서 나온 체언인 '보살'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했어야 한다. 따라서 높임의 유정 체언(보살) 뒤에 사용되는 관형격 조사 '스'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관형격 조사의 형태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밑의 <보기>를 통해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정리해보자.

[유사 기출] - 홀수 문법 73p :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B형

Q.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이,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이, 의, 스'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이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 (예) 늑+이: 늑이 뜯 거스디 아니헝거든 (늑의 뜯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이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大王스 말쌔미샤 울커신마른 (대왕의 말씀이야 울으시지만)
 나무+스: 나무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술위+㉡ 글워를 날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① 이 | 스 | ② 스 | 이 |
| ③ 의 | 스 | ④ 스 | 의 |
| ⑤ 이 | 의 | | |

[정답] ①

[오답률 4위(45%) 예측] : 문법 13번 문항

[적절한 선지 판단(정답 선지)][Killer Point]	
[Killer-Point]	<p>Q.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선생님 : 의미를 지니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렇지 않으면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또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 의미만을 가진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기도 해요. 대체로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일치하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와 일치해요. 다만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해요. 이제 다음 문장의 형태소들을 분류해 봅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나무에 밤꽃이 가득 피었다.</p> <p>㉡ 그는 산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p> </div> <p>학생 : _____ [가] _____</p> </div> <p>① ㉠은 총 8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의 '에, 이, 피-, -었-, -다'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로 분류된다. ③ ㉡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3개이다. ④ ㉠과 ㉡의 실질 형태소의 개수는 동일하다. ⑤ ㉡의 자립 형태소는 ㉠의 자립 형태소 개수보다 많다.</p> <p>문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형태소'를 다룬 문항이다. '형태소' 문항은 기본적인 문법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출제되면 오답률이 높은 편이다. 이 문항에서는 부사 '가득'이 하나의 형태소(실질, 자립)라는 점, 용언은 어간(실질, 의존)과 어미(형식, 의존)를 나누어야 하나다는 점, '했-'의 경우 어간 '하-'와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형태라는 점을 숙지했어야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다. 답은 ④이다.</p>
[유사 기출] - 홀수 문법편 50p : 2016학년도 수능 A형	
	<p>Q.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p>학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_____ (가) _____</p> </div> <p>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③</p>

[오답률 3위(약 57%) 예측] : 문학-고전시가 19번 문항

[구체적 사례가 제시된 [보기] 접근 훈련]

Q. <보기>는 (가)에서 사용한 고사와 인용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요산요수: 『논어』의 ‘지자요수(知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을 줄인 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어진 사람은 의로움을 중히 여겨 산과 같이 진중하므로 산을 좋아한다는 뜻.
- ㉡ 작비금시: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과거에 속세의 벗을 사귀는 것은 틀리고, 지금 자연의 벗을 사귀는 것은 옳음을 뜻함.
-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적은 봉급을 받느라 급신거리는 것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온 고사를 일컬음.
- ㉣ 태부 곁해귀: 범증이 자신이 모시던 항우로부터 의심을 받자 고향으로 되돌아온 고사를 일컬음.
- ㉤ 호연행색: 『맹자』에서 언급한 ‘호연지기’란, 의로움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넓고 큰 내면의 용기를 의미하는데, ‘호연행색’은 ‘호연지기’가 있는 모습을 뜻함.
- ㉥ 부지지: 『도덕경』에서 ‘지지’는 그만둘 때를 안다는 뜻인데, ‘부지지’는 ‘지지’하지 못함을 뜻함.

[Killer-Point]

- ㉣ ㉤를 활용한 것은, 속세의 사람들과는 다른 화자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군.
- ㉤ ㉥를 활용한 것은, 자연에 귀의하고 싶은 마음과 속세에 남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화자가 갈등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할 제와 태부(太傅) 곁해귀(乞骸歸)할 제
호연행색(浩然行色)을 누 아니 부러하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하노라

<제9장>

이 문항은 고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를 제시하여 작품에 적용하는 유형이다. 유형을 낱설게 여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본질은 동일하다, <제9장>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문항이었다.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할 제와 태부(太傅) 곁해귀(乞骸歸)할 제’는 <보기>에 의거하여 ‘도연명과 범증이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자연(또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는 이들의 ‘호연행색(浩然行色)’을 설의법을 통해 부러워하고 있으며, 자신은 알고도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4번은 속세의 사람들과는 다른 ‘도연명과 범증’의 성품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답이 된다. 고전시가에서는 다양한 관습적 상징과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습적 상징, 고사의 의미 등을 잘 알아둔다면 낯선 고전시가를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공부해 보자.

[유사한 사례] - 2016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A형 36번 문항

가슴이 터져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제 여달아나 보고지고
어화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이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라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빼쳐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발 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젖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원근산천에 흥일이 띠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건딜손가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들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관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 안조원, '만연사' -

Q.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만언사>는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하였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언사>의 텍스트 구성 방식

- ㉠ 익숙한 표현의 제시 :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이웃집 아이들아’ 등
- ㉡ 관습적 의미를 지닌 소재 사용 : ‘백구’, ‘푸른 대’, ‘뉘시’ 등
- ㉢ 대중적 고사 제시 : 소무의 복해 고생
- 북쪽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간 한나라의 소무가 억류되어 19년 동안 고생했던 일

- ① ‘소무의 복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계절적 배경의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는 ‘성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뉘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은 화자의 모습은 ‘뉘시’의 관습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⑤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은 ‘백구’의 관습적 의미와 연관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Tip]

정답은 ③이었다. 구체적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보기]에서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선지의 내용은 잘못되었다.

이 문항의 ①, ②, ③, ⑤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고전시가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습적 상징과 고사이므로 이는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오답률 2위(약 68%) 예측] : 독서-경제 34번 문항

[적절한 선지 판단(정답 선지)][Killer Point]	
①	㉠은 시중 은행들이 현금 대신 국채를 보유할수록 감소한다.
[Killer-Point]	<p>여러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들의 관계를 단계를 거치며 묻는 문제는 주기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다. 특히 이 지문은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어 정보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1문단에서 통화량 개념과 관계를 잘 이해해두고 3문단에서 기준금리와 단기 금리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소유한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 단기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단기 금리와 통화량의 관계를 파악했다면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①번 선지는 지문에 제시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소유한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의 반대 사례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p> <p>또한 양적 완화의 개념을 통해서도 판단이 가능한데, 양적 완화는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 =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은행의 국채가 감소, 통화량 증가. = 반대로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통화량은 감소. 이렇게도 판단이 가능하다. 기억하자. 경제는 개념과 관계이다.</p>

[오답률 1위(약 73%) 예측] : 독서-경제 37번 문항

[적절한 선지 판단(정답 선지)][Killer Point]	
①	X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유입되면서 Y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여 Y국의 물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다.
[Killer-Point]	<p><보기>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적용하게 하는 문제는 평가원 독서 기출에서 고난도 문제로 자주 활용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사례가 지문에 어떤 개념에 대한 구체적 예시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문의 개념과 연관지어 <보기>를 정리하며 지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반대의 사례로 변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보기>는 7문단에 제시된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과 3문단에 제시된 채권 가격,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에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①번 선지의 근거도 3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p>

[참고]

이번 주 경제 지문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여, 지문 해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2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피동 표현(11번 관련)

- 능동 :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 피동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능동문		피동문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잡-+-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능동사)	↔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잡-+-히-+-었-+-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피동사)
개가 사람을 물었다.(물-+-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물-+-리-+-었-+-다)
몽룡이가 춘향이를 안았다.(안-+-았-+-다)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안겼다.(안-+-기-+-었-+-다)

-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뀐다.
 - 예외 :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도 있다. ㉠ 종이 울다. → 종이 울리다.
 - 통사적 피동문의 경우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 ㉡ 길이 넓다. → 길이 넓어지다.
-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대응된다.
-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대응된다.
-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나 ‘-아/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바뀐다.

(2) 피동 표현 만들기

① 파생적 피동(단형 피동) : 피동 접미사를 이용하는 방법

피동 접미사	예	예
-이-	산이 보인다. 나뭇가지가 꺾인다. 이 글은 두 문단으로 나뉜다.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인다. 먼지가 쌓인다.
-히-	성문이 닫히다. 안개가 걷히다. 책장에 책이 꽂히다.	꽃잎에 이슬이 맺히다. 나무가 도끼에 찍히다.
-리-	그림이 벽에 걸리다. 나무에 사과가 달리다. 벽에 구멍이 뚫리다.	운동화 끈이 풀리다. 치마가 바닥에 끌리다.

-기-	눈이 감기다. 실이 끊기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바구니에 과일이 담기다. 그가 경찰에게 쫓기다.
-되(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수익금 전액이 문화 사업에 사용되다. 도시가 형성되다.	

② 통사적 피동(강형 피동) : ‘-아/어지다’

피동 표현	예
-아/어 지다	버스가 멀어지다. 책상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다. 웃고름이 풀어지다. 유학 갈 기회가 주어지다. 소원이 이루어지다.

2. 사동 표현(11번 관련)

- 주동 : 주어가 행동이나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
- 사동 :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1)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 ① 사동문은 원칙적으로 모두 타동사이다. (목적어 존재)
- ② 주동문과 달리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주어로 새롭게 도입된다.
- ③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대응된다.
- ④ 주동문의 서술어가 사동문에서는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또는 ‘-시키(다)’가 결합한 사동사나 ‘-게 하다’가 결합한 사동 표현으로 바뀐다.

(2) 사동 표현 만들기

① 파생적 사동(단형 사동) : 사동 접미사를 이용한 방법

사동 접미사	자동사 어근 + 사동 접미사	타동사 어근 + 사동 접미사	형용사 어근 + 사동 접미사
-이-	햇살이 고드름을 녹이다. 철수가 수지를 죽이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다.	그가 나에게 사진첩을 보이다.	마을 사람들이 독을 높이다.
-히-	엄마가 김치를 익히다. 할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다.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다. 할머니에게 아이를 업히다.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좁히다. 주인이 집을 넓히다. 조명탄이 사방을 밝히다.
-리-	동건이가 연을 하늘로 날리다. 희수가 팽이를 돌리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	
-기-	나무꾼이 토끼를 나무 뒤에 숨기다. 선생님이 학생을 웃기다. 승모가 음식을 남기다.	할머니 품에 안기를 안기다. 엄마가 아이의 옷을 벗기다. 선생님이 수지에게 일을 맡기다.	

-우-	식구들이 집을 비우다.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깨우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짐을 지우다.	
-구-	어깨를 한번 솟구다. 할머니가 솥을 달구다.		
-추-			그가 걸음을 늦추다. 엄마가 방의 온도를 낮추다.
-시키(다)		감독이 선수에게 훈련을 반복시키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노래를 연습시키다.	

[참고] ‘시키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한다.

② 통사적 사동(장형 사동) : ‘-게 하다’

사동 표현	예
-게 하다	어머니가 손녀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나는 동생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셨다.

3.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 구분하기(12번 관련)

보이다, 잡히다, 업히다, 끌리다, 읽히다, 뜯기다

: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

① 용어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 피동사 :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 사동사 : 문장의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② 목적어의 유무

- 피동사 : 목적어 없음 (‘도둑이 경찰에게 덤미를 잡혔다’와 같이 목적어가 나타나는 예외가 있음)
- 사동사 : 목적어 있음

③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어 보기

- 파생적 피동문 : ‘산이 (나에게) 보이다’ → 통사적 피동문 : ‘산이 (나에게) 보여지다’
- 파생적 사동문 : ‘친구가 나에게 책을 보이다’ → 통사적 사동문 : ‘친구가 나에게 책을 보게 하다’

⇒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판단해서 동일한 형태의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자

[선택지 해설]

11. ①

정답해설 : 답은 ①이야. ㉔를 살펴보자. ‘그는 빈집에 홀로 남겨졌다’에서 서술어를 형태소 분석해 보면, ‘남- + -기- + -어지- + -었- + -다’가 돼. 자, 그럼 ‘-기-’와 ‘-어지-’의 정체를 파악해 보자.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리는 접사가 2개 붙었을 때는 하나씩만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정체를 알 수 있어. 먼저 ‘-기-’를 ‘남다’에 넣어보면, ‘남기다’가 되지. 그럼 ‘남기다’로 문장을 만들어 봐. 그렇지, ‘상훈이가 음식을 남기다’와 같은 문장이 돼. 그럼 ‘-기-’는 피동 접사일까 사동 접사일까? 주체인 상훈이가 음식을 남도록 만드는 거야. 즉, 음식이 남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는 ‘사동 접사’에 해당돼. 다음으로, ‘-어지다’는 장형 피동을 만드는 표현 요소니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게 맞아. 즉, ①의 선지처럼 ‘남겨졌다’는 ‘남다’에 사동 접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 ‘남기다’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사가 맞아.

[오답풀이]

②를 살펴보자. ⑥의 문장 ‘새소리가 아이들에게 들렸다.’는 피동문이야. 문장에서 서술어의 주체는 새소리이고, 새소리는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해. 즉, 들림을 당하는 거지. 피동문임을 보여주는 문법적 요소는 ‘들- + -리- + -었- + -다’에서 피동 접미사 ‘-리-’인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 피동문은 몇 자리 서술어지? 그렇지, 두 자리 서술어야. ‘들렸다’라는 서술어는 ‘새소리가’라는 주어와 ‘아이들에게’이라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해. 이러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새소리를 들었다’가 돼. 이때 서술어인 ‘들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지? 맞아. 주어인 ‘아이들이’와 목적어인 ‘새소리를’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야. 피동문과 능동문의 서술어 자릿수가 똑같은 경우지. 그러므로, 선지에서 ⑥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어든다는 것은 틀렸어.

③을 살펴보자. ③의 문장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침대에 눕혔다’는 사동문이야. 문장에서 주체는 의사이고, 의사는 환자가 침대에 눕도록 시키고 있지. 사동문임을 보여주는 문법적 요소는 ‘눕- + -히- + -었- + -다’에서 사동 접미사 ‘-히-’야. 즉, 선지에서 ‘눕혔다’는 자동사 ‘눕다’의 어근에 접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라는 것은 틀렸어.

④를 살펴보자. ④의 문장 ‘그는 비에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는 사동문이야. 문장에서 서술어의 주체는 ‘그’이고, ‘그’는 비에 젖은 옷을 햇볕에 마르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지. 사동문임을 보여주는 문법적 요소는 ‘마르- + -이- + -었- + -다’에서 사동 접미사 ‘-이-’야. 그럼, 이 문장은 몇 자리 서술어지? 그렇지, 서술어가 ‘그’라는 주어와 ‘비에 젖은 옷’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야. 이 문장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비에 젖은 옷이 햇볕에 말랐다’가 돼. 이때는 몇 자리 서술어지? 그렇지, ‘말랐다’는 주어인 ‘비에 젖은 옷’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야. 부사어인 ‘햇볕에’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④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틀렸어.

⑤를 살펴보자. ⑤의 문장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린다’는 사동문이야. 주체인 아이들이 팽이가 돌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지. 사동문임을 보여주는 문법적 요소는 ‘돌- + -리- + -다’에서 사동 접미사 ‘-리-’야. 이 문장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얼음 위에서 팽이가 돈다’가 돼. 자, 사동문의 주어였던 ‘아이들이’는 사라지고, 사동문의 목적어였던 ‘팽이를’이 주동문에서는 주어인 ‘팽이가’가 되었어. 즉, 선지에서 ⑤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은 틀렸어.

12. ①

정답해설 : 답은 ①이야.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어. 첫째, 의미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문장에서 주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당하면 ‘피동’, 주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시키거나 무엇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동’이지. 둘째, 목적어를 찾아보는 거야. 피동사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없어. 물론, ‘내가 버스에서 발을 밟혔다’와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목적어가 없어. 반면, 사동사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 셋째, 단형 피동, 사동을 장형 피동, 사동으로 바꾸어 보는 거야.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는 접미사를 사용해서 만든 단형문들이야. 그런데, 각 자리에 장형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 장형 사동문을 만드는 ‘-게 하다’ 등을 넣었을 때, ‘-어지다’가 가능하면 피동문, ‘-게 하다’가 가능하면 사동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쓰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럼 ①을 살펴보자. 먼저, ‘골목에서 길이 양쪽으로 갈렸다’는 주체가 ‘갈’이며, 만들어질 때 사람에게 의해 ‘갈림’을 당했겠지. 또한, 목적어도 없어. 즉, ‘갈렸다’는 ‘가르- + -이- + -었- + -다’로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된 피동문이야. 다음으로, ‘지저분한 이불이 새 것으로 갈렸다’는 주체가 ‘지저분한 이불’이며, 새것으로 바꾸어짐을 당한 거지. 목적어도 없어. 즉, ‘갈렸다’는 ‘갈- + -리- + -었- + -다’로 피동 접미사 ‘-리-’가 사용된 피동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㉔에 해당하지 않아. ㉔에 해당하려면 같은 형태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제시되어야 하거든!

[오답풀이]

②를 살펴보자. 먼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신문을 읽혔다’는 주체인 선생님이 학생들이 신문을 읽도록 시켰다는 거지. 또한, 목적어 ‘신문을’도 있으며, 장형 사동 표현인 ‘-게 하다’를 붙여도 ‘읽게 했다’로 성립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읽혔다’는 사동사임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그 책은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게 읽힌다'는 '그 책'이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게 읽힘을 당한다는 의미고, 목적어도 없어. 그러므로, '읽힌다'는 피동사임을 알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나는 개에게 팔을 물렸다'는 주체인 '나'가 물림을 당했고, 목적어도 없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물렸다'는 피동사임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그녀는 우는 아이의 입에 사탕을 물렸다'는 주체인 '그녀'가 아이가 사탕을 물게 만들었어. 또한, 목적어 '사탕을'이 존재하지.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물렸다'는 사동사임을 알 수 있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의 먼지가 비에 씻겨 내려갔다'는 주체인 '자동차의 먼지'가 비에 씻김을 당한 거고, 목적어도 없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씻겨'는 피동사임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강아지를 씻기고 점심으로 사료를 주었다'에서 주체는 생략되어 있어. 쉽게 주체를 '나'로 정해볼게. 그럼 문장이 '(나는) 강아지를 씻기고 점심으로 사료를 주었다.'가 되겠지. 이때, 주체인 '나'는 강아지를 씻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목적어인 '강아지를'도 있어.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씻기고'는 사동사임을 알 수 있어.

⑤를 살펴보자. 먼저, '어머니는 딸에게 음식을 가득 들려 보냈다'는 주체인 '어머니'가 딸에게 음식을 들고 가도록 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목적어인 '음식을'이 있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들려'는 사동사임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그녀는 양손에 무거운 짐이 가득 들려 있었다'에서 '들려'의 주체는 '무거운 짐'이야. 이때, '무거운 짐'은 자기가 그녀에게 달린 것도, 자기가 누군가에 들리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지.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양손에 들림을 당한 거야. 또한, 문장에 목적어도 없어. 그러므로, 두 번째 문장에서 '들려'는 피동사야.

결론적으로, ②의 '읽히다', ③의 '물리다', ④의 '씻기다', ⑤의 '들리다'는 모두 같은 형태가 피동사와 사동사 모두로 사용되어 ㉠에 해당하는 예시가 맞아.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의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스 나라 + 스
이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물 + 인
의	- '이/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선택지 해설]

15. ㉠

정답해설 : 답은 ㉠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세의 관형격 조사를 이해해야 해. 중세의 관형격 조사는 크게 '이/의'와 'ㅅ'이 있어. 먼저, '이/의'는 유정 명사, 즉 살아있는 명사 뒤에 붙어. 특히 높임이 아닌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붙어. 반면, 'ㅅ'은 무정 명사, 즉 살아있지 않은 명사 뒤에 붙으며,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붙기도 해. 예를 들면, 유정명사 '친구' 뒤에는 '의'가, 무정명사 '나라' 뒤에는 'ㅅ'이, 높임의 유정 명사 '부터' 뒤에는 'ㅅ'이 붙어. 자, 그럼 ㉠, ㉡, ㉢을 살펴보자. ㉠에는 '히'가 들어가지. '히'는 현대어로 '해'야. 그럼 이때, '히'는 무정 명사야 유정 명사야? 그렇지, 무정 명사로 'ㅅ'이 들어가서 '히'가 돼. 다음으로, ㉡에는 '도죽'이 들어가. '도죽'은 현대어로 '도적'이야. '도죽'은 유정 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이야? 아니지. 그냥 평칭의 유정명사니까 '이/의'가 들어가. 그런데, '이/의'는 앞의 단어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이', 음성 모음이면 '의'를 사용해. '도죽'의 모음은 '고, ·'로 양성 모음을 사용하지. 그러므로, '이'를 써서 '도죽기'가 돼. 마지막으로, ㉢에는 '즈갯'이 들어가. '즈갯'은 현대어로 '자기'이며, 중세에서 높임의 재귀 대명사야. 그렇다면, 'ㅅ'을 사용해서 '즈갯'이 되어야 해. 즉, ㉠에는 '히', ㉡에는 '도죽기', ㉢에는 '즈갯'이 들어가야 해서 ㉠번이 답이 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 [25~28번 지문] [오정희, '중국인 거리']

‘환경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뚝뚝히 한바탕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85)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p158) 참고하기

[전체 줄거리]

[지문 출제 부분] 어린 소녀의 ‘나’는 6.25 전쟁의 휴전 직후 중국인 거리로 불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다. 전쟁이 끝난 뒤의 낡은 적산 가옥들이 남아 있는 중국인 거리는 해인초 끓이는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그곳에서 ‘나’는 치옥과 단짝 친구가 된다. ‘나’는 치옥과 함께 이웃집 양공주 언니의 방에서 놀다 푸른빛이 도는 액체를 마시고 몽롱한 기분에 빠져 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과 석탄을 훔쳐 먹을 것과 바꾸어 먹기도 하면서 액체를 마시고 몽롱한 기분에 빠져 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과 석탄을 훔쳐 먹을 것과 바꾸어 먹기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낸다. 병이 들어 시골로 간 할머니의 부음을 듣던 날, ‘나’는 자유공원에 묻어 두었던 할머니의 물건을 꺼내 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한다. 어머니는 여덟 번째 아이를 낳고 그날 나는 몸을 둘러쌌던 열기의 정체를 느끼며 마침내 초조를 겪게 된다.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작품 내의 ‘의미’를 파악한다.

<보기>

‘중국인 거리’는 소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중국인 거리’에서 분방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념적 갈등이 엄존하는 시대적 상황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 깨달아 간다. 이러한 **주인공에게 성장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온다.

화자
‘나의 상황’

- ① 성장의 공간적 배경 : 중국인 거리
- ② 성장의 시대적 배경 : 1) 이념적 갈등이 엄존(엄연히 존재함) / 2) 여성의 동물적인 삶
- ③ 자유분방한 유년 시절 ⇨ 성장에 대한 두려움, 혼란스러움

[읽는 중] ‘등장인물에 상황, 정서, 태도 등에 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철로 너머 제분 공장의 굴뚝에서 울컥울컥 토해 내는 검은 연기는 전쟁으로 부서진 도시의 하늘에 전진(戰塵)*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치열했던 함포 사격에도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의 이층집들과 우리 동네 낡은 적산 가옥들뿐이었다.

시가지 쪽에는 아직 햇빛이 머물러 있는데도 낙진처럼 내려앉는, 북풍에 실린 저탄장의 탄가루 때문일까, 중국인 거리는 연기가 서리듯 녹녹한 어둠에 잠겨 들고 있었다.

시의 정상에서 조망하는 중국인 거리는, 검게 그을린 목조 적산 가옥 베란다에 널린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이 시의 풍물(風物)이었고 그림자였고 불가사의한 미소였으며 천칭의 한쪽 손에 얹혀 한없이 기우

는 수은이었다. 또한 기우뚱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이미 물에 잠긴 고물^{*}이었다.

시의 동쪽 공설 운동장에서 때 이른 햇불이 피어올랐다. 잔양(殘陽) 속에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흔들림, 너울대는 바람의 자락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아와아 함성을 질렀다. **체코, 폴란드, 물러가라, 꼭두각시, 괴뢰 집단 물러가라, 와아와아. 여름 내내 햇빛이 걷히면 한 집에서 한 명씩 뺏혀 나간 사람들은 공설 운동장에 모여 발을 구르며 외쳤다.** 할머니는 돌아와 밤새 끄끙 허리를 앓았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 중, 공산 측이 추천한 체코와 폴란드가—(그들은 소련의 위성 국가입니다)— 그들의 임무를 저버리고 유엔군 측의 군사 기밀을 캐내어 공산 측에 보고하는 스파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그 사이에 깊이 고개를 묻으면 함성은 병의 좁은 주둥이에 휘파람을 불어넣을 때처럼 아스라하게 웅웅대며 들려왔다. 땅속 깊숙이에서 울리는, 지층이 움직이는 소리, 해일의 전조로 미미하게 흔들리는 물살, 지붕 위에 활으며 머무는 바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수채에 쭈그리고 앉아 으윽으윽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임신의 징후였다. 이제 제발 동생을 그만 낳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동정했다. 어머니의 구역질에는 그렇게 비통하고 처절한 데가 있었다.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다.**

(중략)

인생이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뒤를 이을 어떤 적절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다만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색채로 뒤범벅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뭉뚱그릴 한마디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봄이 되고 나는 6학년이 되었다. 오빠는 어디서인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 와 길을 들이는 중이었다. 할머니가 없는 집 안에 개는 멋대로 터럭을 날리고 똥을 싸다.

나는 일 년 동안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언니가 쓰던 장미가 수놓여진 옥스퍼드 천의 가방을 들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우리는 겨우내 화차에서 석탄을 훑치고 밤이면 여전히 거리를 쥐 떼처럼 물러다니며 소란을 떨었으나 때때로 골방에 틀어박혀 대본^{*} 집에서 빌려 온 연애 소설 따위를 읽기도 했다.

토요일이어서 오전 수업뿐이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요, 배가 부른 회충은 약을 받아먹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는 집을 훨씬 덜 지었으나 **해인초 끓이는 냄새는 빠지지 않는 염색 물감처럼 공기를 노랑게 착색 시키고 있었다.** 햇빛이 노랑게 끓는 거리에, 자주 멈춰 서서 침을 뱉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회충이 지랄을 하나 봐.

치욕이는 강통에 파마약을 풀고 있었다.

제분 공장에 다니던 치욕이의 아버지가 피땀줄^{*}에 감겨 다리가 끊긴 후 치욕이의 부모가 치욕이를 삼거리의 미장원에 맡기고 이 거리를 떠난 것은 지난겨울이었다. 나는 매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미장원 앞을 지나치며 유리문을 통해 치욕이를 보았다. 치욕이는 자꾸 기어 올라가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당겨 바지 허리 위로 드러나는 맨살을 가리며 미장원 바닥에 떨어진 머리칼을 쓸고 있었다.

나는 미장원 앞을 떠났다. 수천의 깃털이 날아오르듯 거리는 노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였지, 언제였지, 나는 좀체로 기억나지 않는 먼 꿈을 되살리려는 안타까움으로 고개를 흔들며 집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르러 언덕 위의 이층집 열린 덧창을 바라보았다. 그가 창으로 상체를 내밀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내가 끌리듯 언덕 위를 올라가자 그는 창문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닫힌 대문을 무겁게 밀고 나왔다. 코허리가 낮고 누른빛의 얼굴에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내게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받아 들자 그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열린 문으로 어둡고 좁은, 안채로 들어가는 통로와 갑자기 나타나는 별바른 마당과, 걸음을 옮길 때마다 투명한 맨발에 찰랑대며 묻어 오르는 햇빛을 보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끌었다. 속에 든 것은 중국인들이 명절 때 먹는 세 가지 색의 물

감을 들인 빵과, 용이 장식된 엄지손가락만 한 등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금이 가서 쓰지 않는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산고(産苦)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나는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할 때처럼 몰래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한낮이어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들이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차라리 죽여 줘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 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전진: 싸움터에서 이는 먼지나 티끌. / * 적산 가옥: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남겨 놓고 간 집.

* 고물: 배의 뒷부분. / * 대본: 돈을 받고 책을 빌려줌.

* 피뎀줄: 벨트. 동력을 전하는 띠 모양의 물건. / * 초조: 여성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월경.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p>이 작품은 6·25 전쟁의 휴전 직후 인천의 중국인 거리에서 살게 된 소녀의 눈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성숙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장 소설이다. 어린 소녀의 시각으로 전쟁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중국인 거리의 풍경과 중국인 거리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중국인 거리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체험을 겪게 됨으로써 전쟁의 실상과 어른들의 세계를 점차 알아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점차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결말에서 주인공이 초조를 겪는 일은 어린 소녀에서 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됨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구성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치욕, 이웃집 언니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구성함.			
'중국인 거리'	<table border="1"> <tr> <td>'나' ⇨</td> <td>도시 어린 시절 '나'의 궁핍한 유년 시절의 성장 배경이 되는 공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김에 따라 중국인 거리로 들어와 살게 됨 •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중국인 거리의 모습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나타냄 </td> </tr> </table>	'나' ⇨	도시 어린 시절 '나'의 궁핍한 유년 시절의 성장 배경이 되는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김에 따라 중국인 거리로 들어와 살게 됨 •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중국인 거리의 모습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나타냄
'나' ⇨	도시 어린 시절 '나'의 궁핍한 유년 시절의 성장 배경이 되는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김에 따라 중국인 거리로 들어와 살게 됨 •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중국인 거리의 모습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나타냄 		
주제의식의 이해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중국인 거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삶의 고통스러움을 발견함. • 삶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나'의 발견은 임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과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 이웃집 양공주(매기) 언니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됨. </td> <td>⇨</td> <td> <p>이러는 과정에서 '나'가 초조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p>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중국인 거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삶의 고통스러움을 발견함. • 삶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나'의 발견은 임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과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 이웃집 양공주(매기) 언니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됨. 	⇨	<p>이러는 과정에서 '나'가 초조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중국인 거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삶의 고통스러움을 발견함. • 삶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나'의 발견은 임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과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 이웃집 양공주(매기) 언니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됨. 	⇨	<p>이러는 과정에서 '나'가 초조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p>		
감각적 기억	유년 시절 중국인 거리에서 살던 기억을 다양하고 감각적인 문체 로 그려 내는 데서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양한 의성어나 의태어의 활용, 해인초 끓는 냄새에 하늘이 셋노랑게 보인다는 등의 실감 나는 감각적 묘사 등을 통해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현대시 [29~31번 지문][천양희, '새가 있던 자리']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 (p296)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 (p273) 참고하기

[읽기 전] '시의 주제 또는 화자(or 대상)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라.'

직독 : 지문 훑기 [눈에 띄는 시어(구) 파악 → 시적 상황, 화자(대상)의 정서, 태도]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화자의 부정적 [인식]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큰 것을 잃었다 : 성찰 → 반성, 후회 [태도] (+새를 통한 깨달음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향한다	현실의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언제나 방향(고통)이 따름
「부서진 기둥」	주제 : 고통 ⇨ 화자가 겪는 고통과 연결 →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읽는 중] '결국 화자가 여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가 아니라 '자신'이다.'

<p>앞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앓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쉴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p>	→ 새의 자유로움에 대한 인식과 동경
<p>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p>	→ 삶의 고통과 새를 통한 깨달음
<p>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향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p>	→ 과거의 경험과 새를 통한 깨달음 - 천양희, 「새가 있던 자리」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이 작품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가 시련과 방향이 있어야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좌절 속에 빠져 있는 화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역시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도 비상을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역설적 인식]		
힘겨운 현실	------(시련, 좌절)----->	완성
새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바닥을 치는 것 = 시련, 좌절 ----->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 = 완성

[화자의 깨달음] : 비상을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다 = 고통은 완성의 과정이다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시상의 시작	시상의 전개	시상의 심화	시상의 마무리
시상 전개	나뭇가지에 앉아 있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놀람	⇒ 새에 대한 동경을 통해 바닥에서 비상이 비롯됨을 인식	⇒ 인간의 삶도 미로와 미완을 통해 완성이 있음을 깨달음	⇒ 자신을 지켜보는 새의 눈을 의식하여 비상의 의지를 드러냄

화자의 인식 전환
화자는 새를 보면서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라는 깨달음을 '나도 그런 적 있다.'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라며 개인의 경험을 인간 전체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시에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기(in 사용설명서)

그림과 노래의 활용
「부서진 기둥」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출신의 여성 화가로 18세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다. 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아픔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을 창조했다. 작품 속 인물은 몸에 못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강한 눈빛을 갖고 있어, 가혹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다 칼로의 인식은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유사성이 있다.

표현상의 특징

- 고백적인 어투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냄
- 그림과 노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 고난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경제[32~37번 지문][통화 정책]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실업률 감소나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경기 과열 시에는 통화량을 줄여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러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법정 지급 준비율 조정, ㉡공개 시장 운영 등이 있다.

시중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총 예금의 일정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한다. 가령, 총 예금이 100억 원이고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적어도 10억 원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90억 원까지만 외부의 기업 등에 빌려주거나 국채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이와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국채를 매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다.

그런데 통화량의 변동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대개 금리 조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한다. 즉 일정한 시기마다 ㉢기준 금리를 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중 은행들끼리 단기로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에 근접하도록 유도한다. 가령,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단기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시중 은행들이 소유한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단기 국채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단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는 단기 국채의 금리와 단기 국채 구매자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은행들은 국채의 매각 대금만큼 총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므로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은 줄어들고 외부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단기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다른 금리도 덩달아 인하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기준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려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이 충분히 많은데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고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을 때 발생한다. 통화량이란 시중에 공급된 통화의 양을 뜻하므로, 통화량이 충분히 많더라도 화폐가 유통되지 않으면, 즉 화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양적 완화는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기에 실시하는 공개 시장 운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매입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 매입 채권의 대상이 단기 국채가 아니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국채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통화량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

를 표명하고 이를 곧바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를 신호 효과라고 하는데,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심리를 약화시켜 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 둘째, 장기 국채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그때까지 단기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장기 금리를 끌어내린다. 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 국채보다 덜 우량한 회사채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종 회사채들의 가격도 상승시킨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는 각종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셋째, 은행들은 장기 국채의 매각 대금을 총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 둘 수 있으므로, 그에 비례하여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개 시장 운영에서는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만큼 낮아질 정도로만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총 지급 준비금의 증가액이 소규모에 그치지만, 양적 완화에서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증가액 역시 훨씬 크다. 따라서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양적 완화는 대개 소비 시장이 큰 선진국에서 실시되므로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 발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양적 완화를 단행한 A국에서는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많은 자금이 시장 금리가 더 높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만약 이 자금이 신흥 발전국인 B국에 유입되면, B국에서는 A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하락한다. B국 통화로 교환되는 A국 통화의 수량이 많아져 B국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B국의 환율이 하락하면, A국 통화로 표시되는 B국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A국에 대한 B국의 수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양적 완화는 그것을 실시한 나라의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 지급 준비금: 은행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총합계로, 법정 지급 준비금보다 부족하면 자금을 차입해 부족액을 메워야 한다.

*충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C)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실업률 감소나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경기 과열 시에는 통화량을 줄여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D)이러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법정 지급 준비율 조정, ㉡공개 시장 운영 등이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경제 지문입니다. 한 번 환기하고 시작합니다. 경제는 개념과 관계입니다. 첫 문단에 분명히 핵심 개념이 나올 것이고요. 그에 파생되는 관계가 서술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중심 개념은 이해하면서 내려가고, 파생되는 관계들은 정리하며 내려가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당연히 첫 문단은 누구보다 잘 읽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조금 속도를 줄여 읽으면 정리가 잘 될 테니, 한 번에 잘 안 읽었던 학생들은 조금 감속해 봅시다.

① 우선 통화 정책의 개념입니다. 아마 기출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이 문장에 익숙할 것 같아요.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는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통화 정책 = 통화량 조절 정도는 이해하고 내려갑니다.

② 바로 관계가 파생됩니다. 관계는 기억이니까, 저는 문장을 차분하게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때, 저는 잘 헛갈려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표시를 하든 정리를 하든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 침체 : 통화량 ↑, 소비, 투자 확대
- 경기 과열 : 통화량 ↓, 물가 상승 억제

③ 방향 정보입니다. 법적 지급 준비율 조정,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설명하겠네요.

위의 설명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각각 다 설명을 드리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 시험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첫 문단을 읽는 습관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개념과 관계라는 인식 하에, 당연히 통화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와중에 관계가 파생 되면 물어볼 테니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고, 글의 방향은 이런 형식의 글을 자주 보다보니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 저는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각각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경제 지문의 관계들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참고 1] 수능 지문의 관계란?

① 비례 / 반비례 ② 공식 ③ ~수록 ~하다 or ~하면 ~하다

[참고 2] 통화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배경지식)

제 수업을 들었거나 기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화량 조절에 관한 배경지식을 하나 드리면, 통화정책에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파느냐 마느냐로 통화정책의 양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팔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 테니 시장의 통화량이 줄겠지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은행에 돈이 많아지니 시장에 통화량이 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고, 시중은행 혹은 민간 은행은 국민은행이나 농협, 우리은행 뭐 이런 곳들이지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문단

(C)시중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총 예금의 일정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한다. 「가령, 총 예금이 100억 원이고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적어도 10억 원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90억 원까지만 외부의 기업 등에 빌려주거나 국채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이와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C)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국채를 매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역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런 흐름에는 익숙해지세요. 우리가 시험 때에는 ‘이것을 설명하겠군.’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자주 보게 된다면, 익숙해 질 것이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흐름으로 읽게 되겠지요.
- ② 법정 지급 준비율은 「 」 부분인 ‘사례’를 들어주었으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강사의 개입 없이도, 우리는 개념이 제시된 후, 사례가 나오면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따라서’ 이후는 중요할 것입니다. 관계가 제시되네요.
 -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 ↓ 통화량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기억할 수 있게 표시나 정리!)
 -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 ↑ 통화량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기억할 수 있게 표시나 정리!)
 실제 시험 때에는 이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굳이 1문단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경기 침체에는 통화량을 늘려야 하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출 것이고, 경기 과열에는 통화량을 낮춰야 하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기출에서 좋아하는 추론이지요. 실전에서는 물론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할 것들을 하며 내려 갑니다.
- ④ 공개 시장 운영의 개념입니다. 아까 [참고 2]에서도 설명했는데요.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단기 국채를 매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출을 조금 열심히 보셨다면, 이 내용은 익숙하실 겁니다.

-----2문단

그런데 통화량의 변동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대개 금리 조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한다. 즉 일정한 시기마다 @기준 금리를 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중 은행들끼리 단기로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에 근접하도록 유도한다. 「가령,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단기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시중 은행들이 소유한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단기 국채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단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

리는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는 단기 국채의 금리와 단기 국채 구매자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은행들은 국채의 매각 대금만큼 총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므로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은 줄어들고 외부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단기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다른 금리도 덩달아 인하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아마 3문단부터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지문은 확실히 기출 지문에 비해서는 분명 정보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지문에서 많이 힘들었고, 꽤 틀렸다면, 그것은 그냥 이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이고, 다만 이 지문은 사실 모의고사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모의고사에서 과한 정보량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물론 힘들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문에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기출이 편하고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 ① 일단은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은 잡으며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 ② 공개 시장 운영은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학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독해력이 뛰어나거나 경제에 자신이 있다면 이 말이 잘 들어올 것이고, 자신이 경제에 취약하다면 일단은 내려가 볼 것 같은 문장입니다. 이것은 저의 '선'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러나 기출에도 나온 문장이므로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 ③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으로 시작하는 사례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관계입니다. 일단 뭐가 많긴 하지만 정리 한 번 해볼까요?
- 경기 침체 - 기준 금리(낮게 책정) < 단기 금리 - 시중은행의 단기 국채 매입 - 단기 국채 공급 ↓ - 국채 가격 ↑ - 국채 금리 ↓(= 국채 구매자의 수익 낮아짐, 금리를 이자율이라는 개념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면 됨.) - 시중은행 돈 많아짐

이것이 「 」 부분의 관계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많죠? 사실 제가 아까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 이 부분부터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능이라면 그래도 이것보다는 정보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러나 혹시라도 나온다면 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일단 여기서 버텨야 한다. 이때는 손을 쓰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럽다.' 정도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 읽어보고 뭐가 너무 많아서 적당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모두 정리하는 것을 강요하기는 힘드네요. 정보량이 많기는 많습니다.

다만, 경제라는 것의 감각도 익히고, 배경 지식도 쌓아두면 좋으니까 굳이 설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볼게요.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단기 채권을 사 들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의 돈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채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이 희소해져서 채권 가격이 비싸지겠군요. 가격은 비싸지고, 매달 받게 되는 금리는 낮아지고, 결국 채권 구매자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돈이 많아져서 외부에 돈 빌려줄 능력은 커진다는 얘긴데. 이건 제가 고3이어서 시험 시간에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 ④ 앞의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정리를 한 학생들이라면 머리에 어느 정도 내용이 각인이 된 상태겠지요? 이러저러한 과정이 기준 금리보다 높았던 단기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것 정도는 기억합니다.
- ⑤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가 부양됩니다. 아까 시작점을 기억해봅시다. 경기가 침체되면~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과정을 통해서 단기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경기가 부양된다고 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기출과 비교하면 분명히 무엇이 많아 힘들 문단이기도 하다. 공개 시장 운영을 설명한다는 흐름은 잡은 채, 가령 이후의 사례에 집중한다. 그러나 사례의 관계가 쏟아진다. 이해가 안 된다면 차분하게 읽으면서 정리해 보고,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결론을 챙긴다. 즉 단기 금리의 하락은 경기 부양을 불러일으킨다.

-----3문단

그런데 이미 기준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려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이 충분히 많은데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고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을 때 발생한다. 통화량이란 시중에 공급된 통화의 양을 뜻하므로, 통화량이 충분히 많더라도 화폐가 유통되지 않으면, 즉 화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3문단이 힘들었지만, 여기만 잘 버티고 내려왔다면 4문단부터는 그래도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①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계속 침체된 것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차분히 읽으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어도 무슨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는 것 정도의 흐름은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문제 - 해결) 실전이라면 일단 유동성 함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일단 내려갑니다.

[참고]

이미 이렇게 읽은 학생도 있겠으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사실 4문단 처음 두 문장을 차분히 정독하면 관계가 하나 나옵니다. 확인은 해보세요. 실전에서 바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금리가 낮죠. 차분하게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배경지식이 없다면 실전에서 바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② 통화량은 많은데 안 써서 돈이 안 돌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유동성 함정의 이유가 나오네요.

-----4문단

이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C)양적 완화는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기에 실시하는 공개 시장 운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매입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 (매입 채권의 대상이 단기 국채가 아니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국채라는 점)이 다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반짝거릴 단어가 하나 있네요, 지금 이 글을 읽는 학생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때’라는 말 이후의 문장은 중요합니다. 출처자가 되게 좋아해요. ‘이때’라는 말 이후의 말은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할 때 보통 쓰거든요. 익숙해지면 좋아요.

① 유동성 함정(문제) - 양적 완화(해결)의 흐름입니다. 어쨌든 양적 완화는 중요하겠군요. 해결이니까. 그러나 실전에서 우리는 양적 완화가 해결이라서 중요해! 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적 완화가 중요하게 각인이 되면 됩니다.

② 양적 완화의 개념은 챙깁니다. 근데 읽으면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시장 운영이란 다를 바가 없어요. 시중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여서 통화량을 증가시킨대요.

③ 이것저것 차이가 세 가지 정도 있긴 있는데, 그냥 차분히 읽으면서 기억이나 하는 거죠. 돌아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힘드니까요. 그래도 저는 설명을 해야 하니 정리해 두겠습니다.

- 매입 규모가 방대 / 규모를 미리 공표 / 장기 국채(공개 시장 운영과 다른 점!)

-----5문단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통화량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곧바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를 신호 효과라고 하는데,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심리를 약화시켜 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 둘째, 장기 국채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그때까지 단기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장기 금리를 끌어내린다. 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 국채보다 덜 우량한 회사채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종 회사채들의 가격도 상승시킨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는 각종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셋째, 은행들은 장기 국채의 매각 대금을 총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 둘 수 있으므로, 그에 비례하여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개 시장 운영에서는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만큼 낮아질 정도로만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총 지급 준비금의 증가액이 소규모에 그치지만, 양적 완화에서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증가액 역시 훨씬 크다. 따라서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솔직히 저도 이쯤 돼서 그냥 정신 놓고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다만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통화량이 많은데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유동성 함정을 양적 완화를 통해 해결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 들이는 것인데요. 공개 시장 운영과 차이가 있다면 방대하고, 미리 공지하고, 장기 이고 뭐 그런 겁니다.

① ‘첫째’ 딱 보자마자 반가웠습니다. 한 문단에 다 첫째부터 다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 가볍게 흘러가도 될 테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때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병렬이니까 저는 일단 실전에서 그냥 가볍게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② 제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보다는 나올 테니까, 그래도 계속 이 흐름은 유지하면서 읽긴 했습니다.

경기 침체니까 통화량을 늘렸어요(1문단), 그런데 통화량이 많아도 유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유동성 함정이 고요(4문단). 즉 양적 완화는 결국 돈을 잘 돌게 만드는 것이 되지요(5문단). 이렇게 이해하면 6문단의 방향이 잡히기는 해요. 6문단은 양적 완화의 효과를 말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돈이 잘 유통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 정도를 기억하면서 내려가셨다가 문제 풀 때 왔다갔다하면 될 것 같아요.

③ 저는 그래도 설명을 해야 하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며 갈게요.

- 1) 신호 효과(기억) - 화폐 유통량 증가
- 2) 장기 국채 공급량 감소(기억) - 각종 금리 인하
- 3) 은행에 돈이 많아짐(이해, 기억) - 외부에 빌려 줄 돈 많아짐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이나 하면서 갑니다. 저처럼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면 1), 2), 3)이 결국은 돈이 시장에 더 잘 돌게 하는 것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 아마 힘들겠지요? 그러면 이런 거 기억이나 했다가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왔다갔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내려갑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지식 참고용으로 써 봤습니다.

[참고] 양적 완화와 신호 효과의 관계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많이 사 들일 것이라고 그 규모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이 많아지고, 그 규모를 미리 공표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시중은행에 돈이 많아질 것임을 미리 알게 되지요. 통화량이 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므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돈 쓰면 손해 보니까요. 즉 중앙은행이 앞으로 할 정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신호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효과에 따라 화폐 유통량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 금리 인하와 화폐 유통량의 상관관계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리를 이자율로 생각해보면, 은행에다 돈 맡겨봐야 얼마 남지도 않을 거라서,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지문의 설명과 관련지으면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 돈이 많이 유통되었군요.

-----6문단

한편, 양적 완화는 대개 소비 시장이 큰 선진국에서 실시되므로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 발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양적 완화를 단행한 A국에서는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많은 자금이 시장 금리가 더 높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만약 이 자금이 신흥 발전국인 B국에 유입되면, B국에서는 A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하락한다. B국 통화로 교환되는 A국 통화의 수량이

많아져 B국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B국의 환율이 하락하면, A국 통화로 표시되는 B국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A국에 대한 B국의 수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양적 완화는 그것을 실시한 나라의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거 읽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 ① 마지막 문단의 '한편'은 그 문단 내용을 무조건 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 ② 다행히 사례를 들어주니까 적당히 차분하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 ③ 사례를 3문단처럼 또 관계를 많이 써놨네요. 또 뭐가 많죠? 그러니까 차분히 읽으면서 두 가지 중 하나는 합시다.
 - 차분히 읽으면서 일일이 정리하며 기억하기(힘이 남아 있다면,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집중력이든, 뭐가 됐든!)
 - 마지막 문단이니깐 일단 그냥 읽어가면서 결론만 기억해놓고 흐름 유지한 채로 돌아올 준비하기(어쨌든 양적 완화는 실시한 나라에는 도움 되지만 이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는 손해 볼 수 있음!)

제 설명의 초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즉 배경지식도, 살아온 배경과 문화도, 독해력도 모두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야 하는 최소치와 이해가 됐을 때의 최대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는 배경지식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많이 작용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도 설명은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많습니다.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의고사의 목적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과한 듯한 지문을 훈련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기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문을 해설하기 위해, ① 경제를 거의 모르는 제 조교, ② 그리고 알게 아는 저, 그리고 ③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 이렇게 셋이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내용 파악 때문이 아니라, 실제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요. 경제학 전공한 학생의 말을 인용합니다. 참고로 꽤 경제 지식이 많은 학생입니다.

“지문 자체는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기는 한데,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단, 내가 고3이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이 지문을 잘 풀어내신 학생은 뿌듯함을, 조금 힘들었던 학생들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추가 기출 분석] 2018년 6월 평가원 - 통화정책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을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 뒷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 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3.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저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추가 기출 분석] 2018학년도 수능 - 환율의 오버슈팅과 정책 수단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⑦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①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②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③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5. **㉠**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6.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8.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해설] - 답 확인용으로 넣어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 ①

이 글은 시작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화 정책의 목적을 간단하게 드러냈을 뿐 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② 2문단의 '예를 들어'라는 표현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채권의 매수와 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재량주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⑤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경제학자 병은 경기를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때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과 1문단에 언급된 '기준 금리가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하면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매 분기 2%를 유지'하려면 1, 2분기에서 미리 기준 금리를 인하하여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면서 2, 3분기에 3%로 제시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때 2,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p 떨어뜨려서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1.5%p 올라야 가능하다. 즉 ⑤처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여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에 따라 3분기 물가 상승률도 2%를 유지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게 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 역시 4%로 조정될 것이다. ②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된다. 그리고 2분기에 기준 금리를 4%로 인상하면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다시 3%가 될 것이다. ③ 1분기 기준 금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상승률도 3%를 유지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로 조정될 것이다. ④ 1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2분기 물가 상승률은 2%로 조정되었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4%로 인하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로 조정될 것이다.

3. ①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하여 준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어김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준칙주의'의 입장에서는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칙은 잘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③ '준칙주의'는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량주의'는 이와 달리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도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재량주의'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①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자국 물가가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을 통해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 하는데, 이는 물가 경직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금리 하락의 폭이 작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환율은 단기에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한 반면 물가의 경우 단기에 신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가의 조정 속도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을 통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영할수록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가 경직성이 클 경우에는 물가의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므로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길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5. ⑤

자동성은 정책 수행을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카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위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강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의 강화는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반면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므로 가시성이 높다. ③ 자연 보존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금지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높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높지 않다. ④ 정부 기관에서 특정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일수록 직접성이 높으므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으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정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6.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에 해외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면 B국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B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B국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적어지는 반면 A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금융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므로 A국 환율의 오버슈팅은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A국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A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A국에 외환의 유입이 증가하면 A국 환율은 다시 낮아져 균형 환율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A국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A국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환율이 균형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책 당국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A국의 내수는 위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7. ④

[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단기에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에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실질 통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c이다. 한편 시장 금리의 경우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가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면 반등하게 되므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a이다. 환율의 경우 오버슈팅에 의해 크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로 수렴되는데, 이는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런데 자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균형 환율 역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b이다.

8. ③

5단락에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설명되고 있다. 미세 조정 정책의 수단으로 정보 공개, 가격 규제 축소, 세금 조절, 환율 변동 보험 제공, 지급 보증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와 같은 강제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 보험의 제공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② 5문단에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조절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④ 5문단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급 보증 제도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⑤ 5문단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To.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고생했을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흘러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역 학생들이면 한창 졸업 사진 찍고 나서 수행 평가 하느라 바쁠 것 같고, N수 학생들이면 술술 지칠 때가 됐겠네요. 5월은 이래저래 힘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를 별일 없이 잘 버텨오느라 수고했어요.

이번 주 한수 모의고사 수록 작품이죠. 서정주 시인의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 이 시는 제게 있어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제 취향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1도 해석이 안 될 거라서.) 물론 올해 EBS 수록 수록 작품이니까 여러분들께도 꽤나 중요한 작품이 되겠지만. 이번 주에 이 시를 보고 나서 불쑥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이라고 해봤자 겨우 13년 전쯤이기는 한데.(옛날인가요?) 고3 때 EBS 문제집에서 처음 봤던 시였는데, 제가 이 시를 봤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고, 이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대학교 때에는 이 시로 소논문을 썼습니다.(물론 학부 수준의 논문은 논문으로 치지도 않아서 논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과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고3 9월이었습니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부끄럽지만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시를 그 자리에서 해석해 냈을 리가 없거든요. 저도 분명히 그날 처음 봤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텐데. 다만, 제가 이 시를 보고 확 끌렸던 것은,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너무도 간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괜히 가슴이 저릿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계속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하다가,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너무 절박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고3 9월이어서 그랬던 건지. 고2때 까지 친구랑 세탁소며, 맥도날드며 최저시급 2,300원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친구 집에 녹음실을 만들면서 해왔던 노래를 못하게 되어서 더 와 닿았던 건지. 목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됐고, 노래 덕에 학교에서 꽤나 유명했는데 노래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됐고. 참 매순간 벽이었어요. 벽 다음은 또 벽이었고, 그 벽을 지나면 또 벽이었어요. 매순간 누구보다 간절하게 문이 열리길 바랐었는데, 단 한 번도 꽃은 없었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그때가 그랬어요. 벼락과 해일만이 길인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오던 한 가지가 딱 끊어진 느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래서 간절했던 문은 정말 열리지 않았고 좌절과 함께 조금 힘들었다가 그것을 애써 봉합했던 시기에 이 시를 마주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때의 저처럼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나요? 정말 이루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이 아니라면 언젠가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말이지요. 저는 나름대로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간절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순간순간이 간절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응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고등학생 때의 저의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수많은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M.

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실업률 감소나 물가 안정 같은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의 ㉠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는 통화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경기 과열 시에는 통화량을 줄여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러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법정 지급 준비율 조정, ㉡ 공개 시장 운영 등이 있다.

시중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총 예금의 일정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율을 ㉢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한다. 가령, 총 예금이 100억 원이고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적어도 10억 원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90억 원까지만 외부의 기업 등에 빌려주거나 국채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이와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국채를 매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다. 33-⑤, 33-①

그런데 통화량의 변동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대개 금리 조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한다. 즉 일정한 시기마다 ㉥ 기준 금리를 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중 은행들끼리 단기로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에 근접하도록 유도한다. 가령,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단기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시중 은행들이 소유한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 단기 국채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단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는 단기 국채의 금리와 단기 국채 구매자의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은행들은 국채의 매각 대금만큼 총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므로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은 줄어들고 외부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단기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다른 금리도 덩달아 인하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34-②, 34-③, 34-④, 34-⑤

그런데 이미 기준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려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이 충분히 많은데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고 소비와 투자가 나사지 않을 때 발생한다. 통화량이란 시중에 공급된 통화의 양을 뜻하므로, 통화량이 충분히 많더라도 화폐가 유통되지 않으면, 화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총 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35-①, 35-②, 35-③, 35-④, 35-⑤

이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양적 완화는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실시하는 공개 시장 운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매입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 매입 채권의 대상이 단기 국채가 아니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국채라는 점이 다르다. 36-①, 36-②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통화량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곧바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를 신호 효과라고 하는데,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심리를 약화시켜 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 둘째, 장기 국채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그때까지 단기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장기 금리를 끌어내린다. 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 국채보다 덜 우량한 회사채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종 회사채들의 가격도 상승시킨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는 각종 금리의 인하를 촉진한다. 셋째, 은행들은 장기 국채의 매각 대금을 총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 둘 수 있으므로, 그에 비례하여 외부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개 시장 운영에서는 단기 금리가 기준 금리만큼 낮아질 정도로만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총 지급 준비금의 증가액이 소규모에 그치지만, 양적 완화에서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증가액 역시 훨씬 크다. 따라서 통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36-③, 36-④

한편 양적 완화는 대개 소비 시장이 큰 선진국에서 실시되므로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 발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양적 완화를 단행한 A국에서는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많은 자금이 이 시장 금리가 더 높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만약 이 자금이 신흥 발전국인 B국에 유입되면, B국에서는 A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하락한다. B국 통화로 교환되는 A국 통화의 수량이 많아져 B국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B국의 환율이 하락하면, A국 통화로 표시되는 B국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A국에 대한 B국의 수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양적 완화는 그것을 실시한 나라의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는 나라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①, 37-②, 37-③, 37-④

* 총 지급 준비금: 은행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총합계로, 법정 지급 준비금보다 부족하면 자금을 차입해 부족액을 매워야 한다.
* 총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공통점/ 차이점

장기채금리↓
↓
장기금리↓
↓
회사채가격↑, 금리안하촉진

*관계)
법정지급준비금
→ 통화량↑

[관계] 32-②
장기금리, 국채매입
↓
단기국채
↓
가격상승
↓
단기국채금리
↓
수익률↓,
총지급준비금↑
↓
단기금리
↓
통화량↑

32. 밑줄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 통화 정책 수단의 효과에 대한 논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량의 조정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에서 단기 국채의 매매가 미치는 효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양적 완화가 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4-①

33.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개 시장 운영에서는 국채의 매매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 ② 시장 금리가 더 높은 나라일수록 화폐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 **시장금리↑, 가치↑**
- ③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의 유통량이 증가한다. → **통화량증가, 경기부양(3분단)**
- ④ 시중 은행은 총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 둘수록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총 지급 준비금↑, 빌려줄 수 있는 능력↑**
- ⑤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화량↓**

34. 밑글의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중 은행들이 현금 대신 국채를 보유할수록 감소한다.
- ② ㉡은 통화량의 변동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 수단이다. **측정하기 어려워서**
- ③ ㉢은 (시중 은행들끼리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 **단기금리**
- ④ 물가 안정을 위해 ㉣을 실시할 때에는 ㉡을 단기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여 ㉠을 조절해야 한다.
- ⑤ 경기 침체에 ㉣을 실시할 때에는 ㉡을 단기 국채의 금리보다 높게 책정하여 ㉠을 조절해야 한다.

→ 경기침체기 → 공개시장운영에서 단기채권매입 → 단기국채금리 떨어트림

②과 단기국채금리 격차가 줄어드는게 목표니까 ㉡ < 단기

35.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음에)

- ① 전통적인 공개 시장 운영 방식으로 해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해)
- ② 장기 국채의 금리가 단기 국채의 금리보다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 → **장기금리를 끌어내릴 때 양적완화의 효과(3분단)**
- ③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때 발생할 수 있다.
- ④ 시장에 공급된 화폐의 양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괴리될 때 발생할 수 있다. =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 ⑤ 통화량이 감소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 때 발생할 수 있다.

→ 통화량은 상환X (통화량이 충분히 공급되었는데도 도망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필요)

3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진 어떤 가상의 나라에서 ㉠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가 0%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현재 이 나라의 법정 지급 준비율은 5%이다.

유형 항.

- ① ㉠가 법정 지급 준비율을 10%로 높이면,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군.** **잠재성과**
- ② ㉠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면, **신호 효과가 발생하여 현금 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군.** **낮아지겠군.**
- ③ ㉠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결과로 장기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현금보다 장기 국채를 보유하려 하겠군. **가격증가 → 채권구매자 수익률+금리↓**
- ④ ㉠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결과로 각종 회사채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회사채를 구입하는 개인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겠군.
- ⑤ ㉠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결과로 예금 금리가 변동하면, **개인들이 더 많은 돈을 예치하여 시중 은행들의 총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겠군.** **양적완화 → 금리하락 → 많은 돈 예치할 리가 없음.**

양적완화 실시 → 채권금리나 수익률 하락

해체 가격 상승. 각종 채권 인자.

37.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Y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Y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양적 완화의 결과로 X국의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자 **안정 자산**이면서 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Y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X국에 투자되고 있던 자금이 Y국으로 유입되어 Y국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X국과 달리, 시장 규모가 작은 Y국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이동에 따른 통화량 변동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X국 통화에 대한 Y국 통화의 환율이 급변하여 수출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Y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으므로 수출 부진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Y국의 채권 수익률도 조만간 떨어질 것이므로 환율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 ① X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유입되면서 Y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여 Y국의 물가 상승이 **촉진**될 것이다. **통화량증가 → 물가상승 유발**
- ② 해외 자금의 유입에 따른 Y국의 통화량 증가는 Y국 내부의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③ Y국의 채권 수익률이 다시 떨어질 것이므로 해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세가 진정될 것이다.
- ④ X국 통화에 대한 Y국 통화의 환율이 급락할 것이므로 X국에서는 Y국에서 수출된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 ⑤ X국 통화에 대한 Y국 통화의 환율은 급락 이후 점차 상승할 것이므로 Y국의 수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X국 자금 → Y국

자금유입 → 관물하락... ㉠, ㉡

채권수익률↓ → 시장금리

→ 통화량증가, 경기부양효과... ㉢,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기억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세기 중반 무렵 신경 과학자들은 우리의 몸 전체에 뉴런(신경 세포)들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고 이 뉴런들이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외부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운동 기관에 전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질 때 뉴런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한편, 20세기 초·중반에 행동 심리학자들은 학습과 기억이 척추동물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척추동물들은 무해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더 이상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이를 습관화라고 한다. 반면 발에 전기 충격 같은 유해한 자극을 가한 다음에는 귀를 살짝 건드리는 무해한 자극을 가해도 화들짝 놀리는 회피 반응을 보인다. 이를 민감화라고 한다. 습관화와 민감화는 모두 척추동물들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학습하고 기억한 다음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학습과 기억은 우리가 타인의 전화번호를 외울 때처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힐 때처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반사적 학습과 암묵적 기억이라고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에릭 켈렐이 군소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학습과 기억의 신경 해부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려 한 것은, 이처럼 뉴런의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학습과 기억이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을 때였다. 그는 군소와 같은 무척추 동물의 경우에도 척추동물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복부 신경절을 통해 습관화나 민감화와 같은 반응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척추동물은 반사적 학습과 암묵적 기억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켈렐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첫째, 군소의 피부에 있는 호흡관을 가볍게 자극하면 아가미가 빠르게 수축했지만, 이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하자 아가미의 수축이 점차 약화되었다. 둘째, 군소의 꼬리에 강한 자극을 가하면 아가미가 더 많이 수축했는데, 그 다음에는 꼬리가 아닌 곳, 호흡관이나 머리를 가볍게 자극해도 꼬리에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처럼 아가미가 수축했다.

켈렐은 군소의 뉴런들에 미세 전극을 삽입하여 습관화나 민감화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뉴런들의 전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나는 학습 유형에 따라 군소의 복부 신경질의 신경 회로가 매개 회로 혹은 조절 회로로 달리 활성화된다는 점이었다. 매개 회로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뉴런과 아가미와 같은 운동 기관을 관장하는 운동 뉴런이 단일한 경로로 연결된 신경 회로로서 습관화에 관여한다. 가령 호흡관에 가벼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했더니, 호흡관과 연결된 감각 뉴런에서 시냅스로 분비되는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아가미의 수축 반응이 약화되었다. 뉴런의 신호 전달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전위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켈렐은 글루타메이트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고 습관화 학습이란 그것

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절 회로는 어떤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뉴런이 다른 감각 뉴런과도 연결된 신경 회로로서 민감화에 관여한다. 가령 꼬리에 강한 자극을 가했더니, 꼬리와 연결된 감각 뉴런의 신호를 받은 중간 뉴런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었다. 켈렐은 이 세로토닌이 시냅스 후 뉴런인 다른 감각 뉴런에서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꼬리에 전기 충격을 받은 군소의 경우, 꼬리가 아닌 다른 감각 기관에 가벼운 자극만 가해도 아가미가 강하게 수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로부터 켈렐은 민감화 학습이 세로토닌이라는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켈렐이 밝힌 또 다른 사실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생성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르면, 단기 기억은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량에 변화가 생기거나 세로토닌이라는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방식으로 시냅스 연결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강화되어 생성된다. 반면 장기 기억은 민감화의 경우 시냅스 연결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생성된다. 감각 뉴런이 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이 자극 정보가 감각 뉴런의 핵까지 전달되고 이로 인해 핵 속에 있는 기억 관련 유전자가 발현되어 시냅스 연결이 새로 추가되어 장기 기억이 생성된다. 습관화의 경우에는 무해한 자극을 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가하면, 신호 전달에 기여하는 감각 뉴런 내 조치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장기 기억이 생성된다.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질 때 군소의 신경 회로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밝힌 켈렐의 이러한 연구는, 이후 척추동물의 뇌에서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와 동일한 신경 해부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초석이 되었다.

- * 신경 회로: 서로 연결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들의 집합.
- *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작은 틈.
- * 중간 뉴런: 감각 뉴런의 신호를 받고 다른 감각 뉴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뉴런 등을 일컫는다.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억 관련 유전자는 감각 뉴런의 핵에서 발현된다.
- ② 켈렐은 군소에게도 학습과 기억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 ③ 인간의 신체에서 뉴런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은 두뇌이다.
- ④ 켈렐의 연구는 신경 과학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 ⑤ 습관화는 학습과 기억에 의한 동물의 행동 변화를 보여 준다.

39. ㉠과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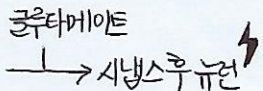
- ① 척추동물에 무해한 자극을 반복해서 가하면 ㉠이 이루어진다.
- ② 군소에 유해한 자극을 반복해서 가하면 ㉡이 더 오래 나타난다.
- ③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는 것은 ㉠에 해당하고 타인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④ 무해한 자극에 대해 ㉠이 이루어진 척추동물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면 ㉡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각각의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 ⑤ 동일한 무해한 자극에 대해, ㉠은 회피 반응이 나타날 확률을 낮추고 ㉡은 회피 반응이 나타날 확률을 높인다.

→ 무해한 자극을 받을 때 놀라는 것 ㉠이면 ↓, ㉡이면 ↑

④ 감각 뉴런
↓
중간 뉴런 (세로토닌)
↓
다른 감각 뉴런 (글루타메이트)

④ ㉠ ㉡

② ㉠ ㉡



40.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군소의 복부 신경질의 일부 뉴런은 육안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커서, 그런 뉴런에 미세 전극을 삽입하면 전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호흡관에 가해진 자극을 가한 직후의 뉴런들의 전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각각 그 직전에 꼬리에 아무 자극도 가하지 않은 '군소 1'의 호흡관에 연결된 감각 뉴런과 아가미를 관장하는 운동 뉴런의 전위 변화를 나타내고, [b]와 [d]는 각각 그 직전에 꼬리에 강한 자극을 가한 '군소 2'의 호흡관에 연결된 감각 뉴런과 아가미를 관장하는 운동 뉴런의 전위 변화를 나타낸다.

(단, 감각 뉴런은 외부의 자극이 클수록 전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데, '군소 1'과 '군소 2'의 호흡관에 가한 자극의 크기는 동일하다. 또한 시냅스 전 뉴런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을수록 시냅스 후 뉴런의 전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

- ① [a]와 [c]로 보아, '군소 1'의 매개 회로가 활성화되었겠군.
- ② [a]와 [c]로 보아, '군소 1'의 감각 뉴런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었겠군.
- ③ [b]와 [d]로 보아, '군소 2'의 조절 회로가 활성화되어 아가미가 수축되었겠군.
- ④ [c]와 [d]로 보아, '군소 2'의 중간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었겠군. **세로토닌 → 다른 감각 뉴런에 영향.**
- ⑤ [c]와 [d]로 보아, '군소 1'의 감각 뉴런보다 '군소 2'의 감각 뉴런에서 더 많은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었겠군.

41.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매개 회로'로 같다.**
- ① 습관화에 관여하는 신경 회로가 달리 활성화된다.
 - ② 감각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 ③ ~~장기 기억과 단기~~ 단기 기억이 생성될 때에는 감각 뉴런의 핵에서 기억 관련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한다.
 - ④ 단기 기억과 달리 장기 기억이 생성될 때에는 ~~운동 뉴런~~ 뉴런에서 분비되는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증가하기도 한다. **감각**
 - ⑤ 단기 기억과 달리 장기 기억이 생성될 때에는 시냅스 후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 뉴런 내의 조직이 변화하기도 한다. **시냅스 연결 추가 생성.**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규명(糾明)했다 ② ㉡: 체득(體得)할
 - ③ ㉢: 유발(誘發)하는 ④ ㉣: 경미(輕微)한
 - ⑤ ㉤: 형성(形成)되거나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황 공이 부인과 월성을 불러 놓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왕명을 받고 만리타국으로 가서 돌아오려면 오래 걸릴 것이니 부인은 자녀를 데리고 농사를 힘쓰고 노복들과 같이 집을 잘 지키시오." 또 전담 문서를 내어놓고 말하였다. "나는 돌아오기 힘들 것이니 재산을 나누어 놓고 갈 것이오. 부디 농사에 힘써 잘 지내시오." 이어서 월선에게 쌀 백 말, 월성에게도 백 말을 주고, 남은 전담은 다 부인에게 맡기고 노복들에게 부인을 잘 모시라고 이른 후 눈물을 머금었다. 부인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부디 만리타국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윽고 황 공이 떠나니 월선은 제 방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황 공이 떠난 후에 박 씨는 전실 자식인 월선과 자신의 아들인 월성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 것 때문에 월선을 미워하여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월선을 불러, "상공이 너와 월성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 주었으니 너는 외당에 세간을 차려 노복과 함께 농사지어 먹고 살아라." 하고 쫓아내었다. 월선은 할 수 없이 박 씨가 시키는 대로 외당으로 나갔다. 이때는 춘경기인지라 박 씨가 곡식을 내어 월성에게는 좋은 씨를 주고 월성에게는 ㉠ **쌔**은 씨를 주었다. 이때 각각 모를 심었는데 월성의 모는 잘 자라고 월선의 모는 썩어서 나지 않고 난데없는 ㉡ **박 한 포기**가 났다. 다른 사람은 이종했는데 월선의 모만 싹도 없으니 노복들이 말하였다. "마님 모와 도련님 모는 잘 되어 이종하였는데 애기씨 모는 나지 않고 박 한 포기가 났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월선이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노복에게 말하였다. "내 운명이 박복한 게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리?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니, 박 한 포기라도 잘 키우도록 해라. 심지 않은 박이 난 일은 범상치 않으니, 두고 보자." 하니 노복들이 명령대로 하였다. 논 가운데 난 한 포기 박은 사방으로 자라서 박이 수천 개나 되었다. 그렇게 팔구월이 되어 월선이 노복에게 그 박을 따 오라 하니, 박이 수천 동이었다. 박 씨도 추수하여 공간을 채우니 곡식이 수천 석이 되었다. 월선은 수천 개의 박을 추수하여 공간에 채웠다. 이를 보고 노복들이 불평하였으나 월선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월성이 누이의 농사가 실패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노복에게 황조 삼십 석을 보내었다. 월선이 동생에게 고마워하며 시비를 불러 박을 가져오게 하여 그 박을 깨어 보니 그 안에는 ㉢ **백미**가 가득하였다. 월선은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가난한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월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하며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박 씨가 이 일을 알고 생각하기를, '월선을 그냥 두면 상공이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월선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모자는 그르게 알 것이다. 월선을 모함하여 상공이 돌아오시면 말해야겠다.' 하고 무너를 몰래 불러 말하였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